

“한 단계 한 단계 천천히 가고 싶어요”

영화 ‘럭키’ 이준 “진실 된 연기 하는게 더 중요”

“굉장히 개인적인 거예요. 저만 아는 그런 거라고 할까요. 마지막 장면에서 허벅지에 칼 맞고 몽둥이 잡으러 가는 그 발걸음 그 스텝을 계산했거든요. 연기할 때 딱 맞아떨어지더라고요. 그럴 때 희열을 느끼죠”

배우 이준(28)은 영화 ‘럭키’(감독 이계벽)를 촬영하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장면을 말하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굳이 생각해보려고 한다면 떠오르겠지만 아마 어떤 관객도 그 장면을 주의 깊게 보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게 이준은 연기 방식이었다면 연기 방식이다.

한 장면 한 장면 욕심내지 않고 하나씩 완성해 간다.

“아직 뚜렷하게 뭔가 보이지는 않아요. 아직 이십대니까요. 차근차근 급하지 않게 욕을 먹을 때 먹더라도 한 단계 한 단계 천천히 가고 싶어요”

‘럭키’의 예상 밖 흥행(24일 현재 누적 관객수 449만명)에 대한 대중의 시선은 어쨌든 배우 유해진의 성공기에 맞춰져 있다. 무명 단역 시절을 거쳐 조연 배우로 조연 배우에서 다시 주연 배우로 ‘럭키’의 성공이 곧 유해진의 성공이다.

하지만 이 영화는 사실 유해진이 연기한 ‘형욱’과 이준이 맡은 ‘재성’ 두 캐릭터가 이끄는 작품이다. 관객의 웃음을 위해 사실상 ‘재성’은 ‘형욱’에 희생됐고, 그런 측면에서 양 캐릭터의 한 축이 무너졌다는 평가도 있다.

“괜찮아요. 그런 건 전혀 상관없어요. 시나리오 읽었을 때, 너무 재밌었기 때문에 역할에 상관 없이 어떤 식으로든 이 작품에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어요. 제 연기에 대한 지적도 있는데, 그런 제가 받아들이고 가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대신 이준은 자신이 공을 들여 연기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재성’이 삶을 포기하고 목을 매다는 장면을 서로 다른 연기로 17번 찍었던 거나 영화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캐릭터의 지질함을 살리기 위해 뒷머리에 일부러 뺨뺨을 만들었던 것, 또 마지막 장면에서의 액션 연기의 합에 대한 이야기를 진지하게, 또는 유머러스하게 들려줬다.

그는 “사람으로서 출발하고 싶다”고 말했다. “특정 장르의 특정 역할을 맡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진실하게 연기하는 게 더 중요하죠”

이준은 2008년 영화 ‘넌자어깨신’에 출연한 이후 6년 동안 그룹 ‘엠블랙’ 활동과 연기를 병행했다. 그는 데뷔 때부터 요즘 흔히 말하는 ‘연기돌’(연기자+아이돌)의 선두주자로 활동했다. 그러던 중 2014년 10월, 연기 활동에 전념하기 위해 ‘엠블랙’을 탈퇴했다.

2015년부터 그는 현재 촬영 중인 ‘캐리어를 끄는 여자’ 등 드라마 4편, ‘럭키’ 등 영화 3편을 했다. 작품 수로 따지면 ‘광복’ 행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다.



이준은 2008년 영화 ‘넌자어깨신’에 출연한 이후 6년 동안 그룹 ‘엠블랙’ 활동과 연기를 병행했다. 그는 데뷔 때부터 요즘 흔히 말하는 ‘연기돌’(연기자+아이돌)의 선두주자로 활동했다.

그는 그동안 ‘연기돌’이라는 카테고리에서 묶여 다양한 비판을 받아왔다. 연기하는 아이돌 가수에 대한 비판은 연기력은 물론 연기에 대한 태도로 번졌고, 같은 맥락에서 이준 또한 이러한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그런 선입견들, 저는 다 인정해요. 다만 어떻게 하면 내 연기가 더 나아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해요”

그는 지금까지 다양한 것들을 해봤는데, 연기가 제일 적성에 맞는 일인 것 같다고 했다. 어릴 때는 피아노를 쳤고, 그외에

악기도 다루기도 했다. 무용을 전공해 대학에 갔고, 다시 무용을 그만두고 가수가 됐다. 이제는 배우가 됐다.

“우리 영화처럼 다른 사람과 인생이 바뀐다면요? 전 그냥 저로 살래요. 아무리 제가 부러워하는 사람도 그 사람의 스트레스가 있을 거예요. 전 그냥 제 스트레스에 만족하면서 살고 싶어요. 영화 흥행해서 좋는데, 지금 당장 진행 중인 드라마가 있잖아요.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뉴스

군산 24개 학교 팀, 전국스포츠클럽 출전 선정

제9회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전북대표 출전팀에 군산지역 초·중·고교 16개 학교 24개 팀이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다. 지난 28일 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원태)에 따르면 최근 전북도교육청이 개최한 전북도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에서 14개 시군 교육청을 대표해 출전한 300여 개 팀 가운데 최종 88개 팀이 선발됐다.

이 가운데 군산지역은 16개 학교 24개 팀이 출전권을 획득해 도내 전체 진출 팀의 30%를 차지했다.

군산교육청 관계자는 “엘리트 선수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학생들이 체육 활동을 통해 공부와 신체활동을 병행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학교 스포츠의 꾸준한 지원과 격려 속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 지역 학생들이 공부와 체육 활동 모두 열정을 쏟고 있음을 실감했다”고 말했다.

한편 28일부터 11월 13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개최되는 제9회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는 24개 종목(장식종목 19개, 시범 종목 5개)에서 2만 1천여 명의 학생들이 승부를 펼칠 예정이다.

/군산=문정근기자

지동원·구자철, 원형 상대로 각각 골·도움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아우크스부르크의 지동원과 구자철이 독일축구협회 컵대회에서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골을 합작했다. 지동원이 골, 구자철이 도움이다.

지동원과 구자철은 27일(한국시간) 독일 뮌헨의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뮌헨과의 2016~2017 DFB 포칼 2라운드(32강전)에 선발 출전해 후반 23분에 만회골을 합작했다.

이날 뮌헨은 나란히 선발로 출전했다. 지동원은 풀타임을 소화했고, 구자철은 후반 32분에 교체로 그라운드를 빠져나왔다. 0-2로 뒤진 후반 23분 추격하는 골을 만들었다.

구자철이 수비 진영에서 전방으로 톱패스를 연결했고, 이를 지동원이 만회골로 연결했다.

지동원은 지난 1일 라이프치히와의 2016~2017 분데스리가 6라운드 이후 26일 만에 골맛을 봤다. 지난 23일 SC 프라이부르크와의 리그 8라운드에서 시즌 첫 도움을 올리는 등 최근 컨디션을 찾아가고 있다.

그러나 아우크스부르크는 뮌헨의 높은 벽을 극복하지 못하고 1-3으로 패했다. 뮌헨은 지난 시즌 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아우크스부르크는 지동원의 골로 추격했지만 후반 추가시간에 알리안츠에게 헤더골을 얻어맞으며 무릎을 꿇었다.

/김민근기자

차두리, 슈틸리케호 전력분석관으로 대표팀 합류

축구 국가대표팀의 만행이었던 차두리(36)가 전력분석관으로 대표팀에 합류한다.

대한축구협회는 27일 “전 국가대표 차두리를 울리 슈틸리케 감독이 이끄는 국가대표팀의 전력분석관으로 선임했다”고 발표했다.

차두리의 대표팀 합류는 최근 협회 기술위원회가 슈틸리케 감독의 동의를 얻어 차두리에게 제안해 이뤄졌다. 대표팀에서 오랜 기간 동안 맞춤형 주장을 맡았기 때문에 코칭스태프와 선수단의 가교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이용수 기술위원장은 “전력분석은 물론 코칭스태프와 선수들의 가교 역할을 훌륭히 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선임 배경을 밝혔다.”

차두리는 다음달 7일로 예정된 대표팀 소집부터 내년 2018 러시아월드컵 최종예선 최종전까지 전력분석관으로 활동한다. 추후 기간 연장 여부는 최종예선에 모두 끝나면 다시 협의 예정이다.

독일에서 지도자 수업을 받던 차두리는 28일 귀국해 이날 오후 신문로 아산정책연구원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

/김민근기자

첫 40만 관중 돌파·2년 연속 K리그 관중 30만명 돌파·K리그 클래식 3연패 달성

전북현대, ‘4-3-3 프로젝트’ 목표 수립

전북현대 모터스축구단(단장 이철근)이 남은 잔여 홈경기를 앞두고 구단 역사에 남을 수 있는 목표를 수립했다.

전북구단이 ‘4-3-3 프로젝트’라 이름 붙인 이 목표는 4 : 구단 역사상 첫 40만 관중 돌파 3 : 2년 연속 K리그 관중 30만명 돌파 3 : K리그 클래식 3연패 달성이다.

첫 목표인 40만 관중 돌파는 구단이 창단한 1994년 이래 단 한 번도 달성한적 없는 대기록이다.

올해는 25경기(K리그 클래식 17경기, ACL 6경기, FA컵 2경기)에서 38만 9,708명의 팬들이 전주월드컵경기장을 찾았다. 오는 11월 2일 수요일 상주 상무전에서 첫 번째 목표에 도전할 계획이다.

두 번째 목표는 2년 연속 K리그 30만 관중 돌파다.

지난 해 최초로 K리그 관중 30만명을 돌파한 전북은 올 해도 그 기록에 도전하겠다는 생각이다. 올 시즌 주중 경기가 6경기로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달성한 33만명 관중 고지점점했다는 구단의 각오다.

세 번째 목표는 11월 6일 FC서울과 마지막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해 K리그 클래식 3연패를 달성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K리그에서 3연패에 성공한 팀은 성남 FC의 전신인 성남 일화 천마의 1993~1995시즌 연속 우승과 성남 일화 2001~2003시즌 연속 우승 밖에 없다.

전북은 4-3-3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ACL 챔피언스리그 까지 우승해 창단 22년 역사 속에서 팬들이 최고의 한해를 선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전북 이철근 단장은 “우리 팬들이 합



이철근 단장은 “우리 팬들이 합쳐 해주신다면 올 시즌 역사를 쓸 수 있다고 믿는다. 이 목표는 승리만으로 달성 할 수 없고 우리 팬들이 함께 해야만 이를 수 있는 목표이기 때문에 더욱 이루고 싶다. 전북의 역사는 이 목표를 이루면서 끝난 것이 아닌 다시 시작이 될 것이다”라며 포부를 전했다.

/김민근기자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THE GREAT CHANGE
태권도원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